

2014. 5. Vol 228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그곳에도 꽃은 핀다

- 소록도 기행

스물다섯 한창 나이 불모로 묶어두고
덧난 상처 해집을수록 속살 흰히 드러난다
피 묻은 통곡 소리에
저무는 천형의 땅

몽툭한 조막손 들어 절규로 그리는 만월
짐승처럼 웅크려 짓무른 자리 보듬을 때
생채기 혀로 핥는가
철썩이는 저 파도

소록분교 운동장엔 폴짝폴짝 깨금발 뛰다
키 낮은 담장 너머로 까르르 쏟아진 웃음
씨방을
톡, 건드렸나
봄은 다시 피어나고……



노영임

- 2007년 《조선일보》신춘문예 당선
- 2012년 제1회 현대 충청 신진예술인 선정
- 2013년 한국시조시인협회 신인상 수상
시조집 『여자의 서랍』
-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시작메모

한센병 환자. 나 어린 시절 문둥이라고 불렸다. “아가야, 아가야. 이리 온, 창꽃 줄게” 진달래꽃을 따주겠다고 산으로 꼬드겨 어린 아이 생간을 빼먹는다고 했다. 어른들 이야기에 눈길조차 마주치는 것도 무서워 꺼려했다. 터무니없는 속설과 외면이 이들을 얼마나 웅크리게 했을까? 그저,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섬 안을 건다가 깜짝 놀랐다. “어, 학교가 있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봤다. 그러고 보니 집 마당 빨랫줄에 아이들 옷이 널려 있다는 사실도 이렇게 놀랍고 기쁘다나... 소록도에도 봄은 오고 있었다.

Contents



단양 소백산 철쭉

충북과 경북의 경계를 거대한 산맥으로 이루고 있는 소백산은 우리나라 12대 명산 가운데 하나다. 5월 하순에는 철쭉꽃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마치 분홍빛 저고리를 걸친 듯한 절경을 보여준다.

- 04 제328·329회 임시회
- 06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 07 충청북도 학교 숲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08 세월호 희생자 추모
- 09 베트남 빈푹성 의회 방문
- 10 각 위원회 활동상황
- 16 주요처리의안
- 20 대집행부질문
- 21 5분 자유발언
- 23 의정활동 이모저모
- 24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26 선거법 관련 안내
- 28 세무상식·칼럼
- 30 의원논단 - 김형근 의원
- 31 의원일기 - 전응천 의원

● 발 행 일 2014년 5월

● 주 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F A X (043) 220-5119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전 화 (043) 220-5123



충청북도의회는 4월 8일 제329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과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제328회 임시회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요구

출산장려 및 영·유아 보육지원 대책 수립도

충청북도의회(의장 김광수)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와 4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제328회 임시회 첫날인 3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박상필 교육위원장의 사직에 따른 교육위원장 보궐 선거를 실시해 하재성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계류중이던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 등에 제출했다.

또 노광기 의원의 ‘출산장려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이어 정현 의원과 김도경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충북신보 영업점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KTX 세종역 신설 논란으로 KTX 오송역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28회 임시회 처리안건

- △충청북도 고문번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4건.

제329회 임시회 처리안건

- △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0건.

제329회 임시회

계획된 사업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농가 적극 지원 당부

4월 8일 부터 14일까지 7일간 실시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김재중 의회운영위원장의 사직에 따라 공석이 되었던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해 이광희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주요 안건과 기타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개회 마지막 날인 4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결산검사 실시를 위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과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모든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문제점은 바로잡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에 대해서도 ‘김대성 교육감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규제완화 대책이 수도권 초집중화 초래”

충북도의회는 지난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 등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지역 발전 전략은 지방정부가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과 산지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수도권 주변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완화 중단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 풀면 큰 부작용

도의회는 또 “전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는 100대 기업 본사의 95%, 외국인 투자유치의 65.2%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제출했다.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문

최근 정부는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난 3월 1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기업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산지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수도권 주변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키울 것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중 3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가 조장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전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는 100대 기업 본사의 95%, 외국인 투자유치의 65.2%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있는 현실이므로,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발표에 대해 충청북도 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공생발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160만 충청도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와 외국인 투자가 비수도권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학교 숲 조성 조례’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도의회, ‘자연 친화적 학교 숲’ 조성에 앞장
도교육청 · 학교 · 환경단체 등 전문가 참여

충북도의회가 자연 친화적 ‘학교 숲’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하재성)는 지난 3월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도교육청 관계자, 도내 학교 교직원, 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학교 숲 조성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정서를 함양시켜 인성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린 이번 공청회는 ‘학교 숲’ 조례 제정에 앞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

지역 주민에게는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계각층 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번 공청회에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조례안의 초안은 ▲학교 숲 조성 및 관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기본계획 수립 시기 및 내용 ▲학교 숲 조성 기준 ▲학교숲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심의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평식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교수는 충북도내 학교 숲의 실태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지적 발달과 함께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인성발달에도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 “학교 숲 조성과 활용을 활성화하는 정

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공술인으로 참석한 연교수는 학교숲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교직원에게 학교 숲 관련 연수나 세미나를 실시할 것과 학교 숲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반기민 ‘충북 생명의 숲’ 이사는 “학교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조례화 할 것”을 제안했으며, 청주·충북환경연합 김정중 사무처장은 “충북지역의 생태계와 연계된 학교 숲 조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청주여고 허진숙 교사는 “학교 숲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옥상 정원 또는 벽면 녹화 등 대체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한림디자인고 박은경 교사는 “학부모나 지역인사를 활용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에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3월 13일 충청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

의원·사무처 직원, 28일 합동 분향소 찾아 분향
충북도와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정착 노력

충북도의회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국민적인 추모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28일 오전 10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했다.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 했다.

도의회는 분향 후 노란 리본에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는 내용, 실종자들이 가족에게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염원하는 글을 적어 도청 서문에 게시했다.

김광수 의장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큰 아픔과 고통을 겪

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과 우리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앞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시설 확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충북도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김광수 의장은 지난 21일에도 충북도 주관으로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민·관·군·경 기관장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생활속 안전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대형마트 등 화재와 안전사고를 대비한 점검과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분향소에는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는 일반 도민들의 조문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합동분향소는 24시간 조문이 가능하며, 경기도 안산 지역 합동영결식 당일까지 운영된다.



4월 28일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충북도의회,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 방문

빈푹성에 진출한 도내기업 행정적 지원 등 요청



김광수 의장을 단장으로 한 도의회 대표단이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우호교류 지역인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를 방문해 판반봉 의장 겸 당서를 만나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충청북도의회 대표단(단장 김광수 의장) 8명이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우호교류를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를 공식 방문했다.

도의회는 이번 방문에서 판반봉 성인민위원회 의장 겸 당서기와 만나 회담을 갖고 2012년 우호교류 협약 후 3년 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충북도내 기업 중 베트남 빈푹성에 시설을 투자한 자화전자와 파워로직스의 현지 대표를 공식 회견장에 초청, 이들 기업과 앞으로 투자할 도내 기업들이 빈푹성에서 원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빈푹성 현지에 공장을 설립 중인 파워로직스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방문단은 빈푹성에 파워로직스 회사 진출입로의 가로수 이전, 공장 내 도로 폭 문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공장 준공 등에 대하여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다.

또 충북도와 빈푹성의 교류 확대와 공조 강화를 약속

하고 충북도에서 올 9월 열리는 '2014 오송국제바이오 산업엑스포'와 '2015 괴산세계유기농 산업엑스포'의 개최와 효과 등을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빈푹성의 학교, 의약품 회사, 축산 농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충북도와 빈푹성 간의 향후 교류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에서 충청북도의회와 빈푹성 간의 굳건한 신뢰를 밑거름으로 도내 기업들이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이 더욱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빈푹성은 지난 2013년 충청북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베트남 빈푹성 판반봉 당서기 겸 성인민위원회 의장 일행이 4월 14일 충북도를 방문해 빈푹성에 투자하고 있는 자화전자와 파워로직스를 시찰한 뒤 청남대를 방문했다.



대표단 일행이 빈푹의약품주식회사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봤다.

운영위원회

제328·329 임시회

201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심사



4월 14일 「201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를 열어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3월 20일에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4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주요 사업현장 방문 등 기타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제329회 임시회 중에는 공식이었던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이광희 의원, 부위원장에 노광기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고 「제330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장이 협의 요청한 「201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기타 현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201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하게 된 것으로, 의장이 추천한 결산 검사위원은 도의원 2명, 공인회계

사 1명, 세무사 2명 그리고 유경험자 3명으로 총 8명이다. 위원들은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3 회계년도 결산 검사를 하게 된다.

결산검사 결과는 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되며 9월 정례회 기간 중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330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 가결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현안 및 주요 사업현장 방문과 의안심사 등을 위해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협정한 세부일정은 6월 10일에 개최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 일몰과 관련한 조례 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제328회 임시회기 중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3월 13일 실시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사회복지위원회 산하에 복지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실시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 위법령에 따라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행정 환경 변화로 증대되고 있는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최대 7명까지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제도와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기

로 했다. 그리고 제329회 임시회기 중인 4월 8일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행정 분야의 법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 사이버를 통해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도록 원활한 상담을 위해 외부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3월 재건축 개관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학습원의 연수비와 시설사용료를 노임, 물가상승률, 타 지역 수련원의 연수비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3월 13일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28·329 임시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6건 처리



3월 13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인 3월 12일 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기타 현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첨단 외국 기업유치 및 MRO 산업의 기반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낙후된 남부·북부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 발전을 도모 등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도내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보은·괴산소방서 신설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또한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했다. 「정부 3.0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공개 확대 운영 정책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는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로 조례 제명의 변경과 출자·출연기관까지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의 공공성 및 도민의 알권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했다.

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능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조례 등 개정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헌)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잠사시험장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3월 12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동 조례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잠사시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바이오 곤충 분야 등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에 연구기능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신사업에 발굴·육성하는 연구기관으로의 역할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농가 피해보상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소관 부서에 주문하였다.

그리고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충청북도 여성농

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4월 18일 실시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 등 여성 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통해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례명을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관련한 '유기(Organic)', '유기식품', '사업자' 등의 용어 신설과, 친환경 농산물 현장체험행사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4월 8일 경제통상국 소관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심사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28·329 임시회

충북개발공사 부채 감축 방안 등 요구



3월 12일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절차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매매업의 전 시시설 연면적 증가 및 입·출구 도로폭 신설,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 완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을 세분화 했다.

또한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건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우려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공식적이었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에 강현삼 의원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재무현황 및 재무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개선목표, 개선계획과 연도별 부채감축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부채감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청북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하재성)는 3월 13일 「충청북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의정 학술연구 과제였던 ‘충청북도 학교 숲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학교 숲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후, 이를 토대로 도내 학교에 학교 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충청북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반영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및 기관별 특색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제329회 임시회 중에도 개회에 앞서 보다 충실

하고 공정한 의안 심사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을 방문하여 수학여행 중인 단성중학교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참관한 후 관계관으로부터 운영상황과 현안사항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제주도에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생 체험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고 제주도에 있는 주요 학생체험 시설을 시찰했다.

또한 4월 11일 위원회를 열고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충청북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학교 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고, 체계적인 학교 숲 조성과 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학교 숲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수정 가결했다.



3월 19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관계관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28 · 329회 임시회

[제328회 임시회]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노광기 의원)

[제안이유]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병윤 의원)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활동' 및 기타 사회복지 분야별 업무 처리의 전문성·효율성과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회복지위원회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복지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 신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은·괴산 소방서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구조정 : 보은·괴산소방서 신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소방관서 신설 및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증원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위임사무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정 지원 범위 현실화, 신규개설 항공노선의 결손금 지원 규정 삭제, 용어 및 문구 명확화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방법 개선,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및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 정보공개 신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위임사무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문정비, 부서명칭 변경,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사업 부지 축소와 추진방식을 양여·양수에서 교환으로 변경하고, 북부출장소의 청사를 신축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재산의 처분 등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강화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영위하기 위하여 민·관·경 협력체제인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 협의회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 실무협의회·지원에 관한 사항 등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 (대표발의 : 황규철 의원)

[제안이유]

-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위탁, 수탁자 의무, 위탁계약 해지 등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박문희 의원)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

[주요내용]

-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변경과 정의 규정 및 용어 정비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과 실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이유]

-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제출하고자함

[주요내용]

- 최근 정부는 지역 발전전략을 지방정부가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

- 개발제한구역과 산지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수도권 주변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키울 것임
- 전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는 100대 기업 본사의 95%, 외국인 투자유치의 65.2%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제329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고,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하부조직 중 보령교육원 및 제주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분리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한시기구 중 존속기한(2014. 2. 28까지)이 도래한 학교폭력예방 대책과 삭제
-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위치와 원장의 업무를 변경 등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자연학습원 재건축 개관에 따른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일반, 단체, 기관 등이 자연학습, 심신단련, 교양강좌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연수비 등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설사용 범위 추가 및 시설사용료 등 조정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 (제의자 : 충청북도의회 의장)

[주문]

-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주요내용]

-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8인을 선임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코자 함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조문 정비 : 영 제79조제1항 → 영 제79조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공표범위 및 목록 게시 방법 신설,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정비 및 개정 등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정원을 증원함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3,203명 → 3,206명(+3명)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 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규정에서의 약칭 삭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충청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원회에 사무직원 배치 및 지방공무원 파견 요청 근거 규정을 둠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현 의원)

[제안이유]

- 도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통해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파트너로 중국 중부 핵심거점 지역인 호북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정의 국제화 강화
- 양 지역 간 국제교류 협력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협약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

[제안이유]

- 자매결연체결 장소와 시기
 - － 충청북도 대표단이 2014년도 하반기(11월 중)에 호북성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
-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내용
 - － 농업, 여성, 문화, 관광, 과학분야 등의 상호교류 증대
 - － 공무원 상호파견, 정책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청주시·청원군이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도세 감면을 적용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함

[주요내용]

- 청주·청원 통합후 적용할 도세 감면을 특례 규정 신설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충북 개발공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수립·운영코자 함

[주요내용]

- 재무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당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행정 분야의 법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사이버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코자 함

[주요내용]

-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추가하고, 사이버 상담을 위해 외부 변호사 위촉가능 규정 마련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주요내용]

- 관허사업 제한 등을 주무관청에 요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 통보 규정과 채권자 등에 교부할 금전의 도금고 예탁 근거 신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희 의원)

[제안이유]

-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증진 및 정서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와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시기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자연성 확보와 교육적 기능 강화 등의 학교숲 조성 기준 등을 규정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이수완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함

[주요내용]

- 사업자의 책무 규정 보완
- 친환경인증 기여도 평가항목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실적' 신설 등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책수요 증원분(추가) 및 통합 청주시 출범 등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기구변화에 따른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기관신설 및 콘도시설을 신축한 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분리 및 통합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관신설 및 콘도시설을 신축한 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하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



출산장려 및 영·유아 보육 지원대책 요구

노 광 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 관련

[질문]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투입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출산 장려를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비 지원과 무상급식,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있고 지역 내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농협을 선도 기업으로 도내 7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CEO포럼, 산후조리 한약 할인, 영화관 광고,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관련, 우리 도 예산은 3,520억 원으로, 도 총예산(3조 5,574억 원)의 9.9%입니다.

영유아 보육 문제 관련

[질문] 충청북도 보육료 수납기준을 보면 만3~5세 유아의 학부모들이 정부지원시설(국공립)이 아닌 미지원 시설(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적게는 월 23,000원에서 많게는 월 58,000원까지 보육료 부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차액의 일부를 도비로 부담하여 학부모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에 대하여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보육료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부모 부담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보육료의 부모 부담액에 대한 도비 지원 등에 대해 우리 도의 재정 형편과 어린이집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통하여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수당포함 135만 원선으로 유치원 교원에 비해 65만 원 이상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시간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비해 낮은 인건비와 휴게시간 부족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와 자긍심이 저하되고 보육교사의 이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부터 농촌지역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 지원 및 2013년 7월 장기근속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 시책을 추진해 왔고 올 해에는 76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문제 등 불합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제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육료 수준에서는 이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육교사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면 어린이집 인건비의 구체적 사용처를 면밀히 파악·분석하고 어린이집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육료 산정 시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법령 개정해야”

그동안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11년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이었던 충북은 지난 1월말 진천·음성지역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AI 발생을 철새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소홀로 발생했거나 확산된다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AI는 자연적 발생이 아닌 사료 및 축산 차량에 의한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에 의한 인재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가금류 축산 농업이 대부분 축산 대기업에 위탁 영농화되어 공장식의 밀집방식으로 사육되는 문제점이 있고 결국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는 겨울철에 AI 전염성이 높아지는 것도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AI 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에 대한 방지 및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염병 관련 방역과 피해보상 예산은 전액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AI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금을 대기업이 아닌 피해농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의원

“균형발전 위해 충북신보 영업점 확대필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고객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02년 충주지점, 2007년 옥천에 남부지점, 2009년에 제천지점이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신보가 지난 1월부터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의 경우 1차분 120억 원에 대한 5일간의 접수기간 중 1,204명의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신청했고, 가경동 본점에만 하루 평균 170명의 소상공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저금리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충북인구 160만명 시대 돌입, 민선 5기 투자유치 20조 조기달성, 통합 청주시 출

범, 충북지역 사업체 수의 지속적인 증가세 등 우리도가 인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불편·애로사항의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북신보 영업점의 확대와 추가설치를 당부 드립니다.



정현 의원



의정활동 이모저모



△ 충청북도의회는 4월 24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의정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영동군 영동초등학교와 진천군 문백초등학교 학생 70여명을 초청해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 10일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을 방문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3월 22일 사회복 > 지시설인 '소망원'을 찾아 배식을 하고 폐비닐 수거 등 주변환경도 정리했다.





△ 김광수 의장은 4월 1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개최된 2014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입장권 사전판매 개시 행사에 참석해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 김광수 의장은 4월 18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실시된 제34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장애인과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 김광수 의장은 4월 11일 충남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해 '국회도서관 상호정보교류 협약식'을 갖고 '도시가스 시설부담금 국비지원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각 시·도별 현안을 협의했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충부매일

2014년 03월 21일 (금)
01면 종합

'찬반대립' 중고차매매단지 조례 통과

'진출입로 폭 8m 도로 인접하면 가능' 규정 완화
'12m' 적용 청주시, 향후 이면 태도 취할지 관심

극심한 찬반 논란과 특정 입제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극심했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를 골

해야 가능했으나, 이같은 조례가 시행되면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관계자는 "중전에는 말 그대로 전시 시설이 도로에 붙어 있어야 설치할 수 있었다"며 "'출구 및 입구'라는 내용이 삽입되면서 진출입로

의 절차를 끝낸 후 본회의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전시시설이 12m 이상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격한 찬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

충청타임즈

2014년 03월 21일 (금)
05면 종합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충북도의회,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는 20일 열린 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주변의 조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수도권으로 기업이 대거 몰려 지방과의 불균형은 더 심각해진다"며 "수도권과 비수도

충청매일

2014년 03월 18일 (화)
05면 종합

학생들에게 맘껏 뛰어놀 공간 '선물'

충북도의회, 다음달 '학교 숲 조례' 제정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학교에 녹색 숲을 만드는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하재성)는 각급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충북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다음달 회기 중 상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학생들이 푸른 숲 속에서 공부하고 맘껏 뛰어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입법 취지다.

만들기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 13일에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도 열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도 교육현장에 있어야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학교 숲 조례를 추진한 것"이라며 "학교 숲의 장점은 학계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숲 치유 전문가'로 통하는 충북대 신원섭 교수의 연구논문을 보면

학업능률은 오르고 조퇴율·지각률은 현저히 낮았다.

신 교수가 숲이 보이는 곳에서 생활하는 학생 500명, 담배라이 보이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숲을 보는 학생들에게선 우울증을 앓는 비율까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훨씬 낮았다. 인터넷·게임 중독에 빠진 학생 수도 적었다.

다른 지자체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경기도 수원시는 100여개 학교에 숲

충북일보

2014년 04월 15일 (화)
04면 종합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숲 조성 조례안 수정·의결

앞으로 학교 숲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확대가 이뤄진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29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학교숲 조성 관리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숲 조성 관리와 강화를 강화하고, 교육적·사회적 활용을 확대

忠清日報

2014년 03월 18일 (화)
02면 종합

도의회 부결 단설유치원 설립 재추진

진천교육청, 24일 주민의견 수렴

충북 진천교육지원청이 충북도의회에서 부결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재추진한다. 진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천읍에 거주하는 800명을 대상으로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8%(704명)가 찬성하고, 반대는 12%(96명)에 그쳤다고 17일 밝혔다. 진천교육청은 오는 24일에는 공

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진천교육청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만큼 공청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수렴되면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충북도의회 1회 추가경정예산에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충북도에 산업을 심사하면서 지역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진천 단설 유치원 설

충청매일

"9대 의회 마무리·선거중립 철저히"

김광수 충북도의장 당부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이 9대 의회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6·4 지방선거에서 전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3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10대 의회의 디딤돌 역할을 충

실히 할 수 있도록 9대 의회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에 대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충북도정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6·4 지방선거에서 전 공무원이 정치중립과 선거개입금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며 "선거



6.4 지방선거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일곱장에 지역사랑을 담아주세요

선거종류

1차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	교육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행정 총괄 집행	도지사선거 시장·군수선거
2차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 사무 견제·감시	도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절차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선거인은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교육감선거의 다른 점

-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음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성명을 가로로 기재함
-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함

▶ **만 19세이상** (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의 한 표 한 표 소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합니다.**

- 투·개표 전 과정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참여 보장
- 개표사무원 공모제를 통해 일반인들도 개표과정에 참여 가능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근로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5월 30일 - 5월 31일 사전투표하세요

“별도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기간

5월 30일(금)~5월 3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
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이 첨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

사전투표방법 및 절차



[자료제공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세무상식

과세 관청서 부당처분 받으면 '국세불복' 가능

처분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해야

□ 국세불복(「국세기본법」 제5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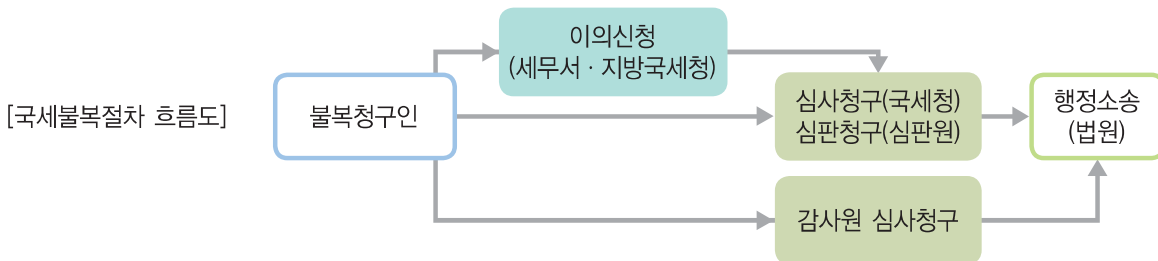
-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 국세불복 절차

- 이의신청은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

구를 직접 제기할 수도 있음.

-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함.
-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친 후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행정심판 전치주의).



□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 국세청이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며,
- 납세자의 재산수준을 고려하여 영세납세자로 그 지원대상이 제한됨.

[자료제공 : 동청주세무서]



가장 존귀한 인간의 생명



수필가 청심 신 성 우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무변광대한 대우주에서 삼라만상의 자연은 영원무한하게 존재하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순간 유한하게 존재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소중하고 귀하다 해도 인간의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며 인간은 누구나 한번 뿐인 일회성의 인생을 삽니다.

내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남이 나의 인생을 대신해 살아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생명의 귀중함을 한결같이 강조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전등록에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유교의 동몽선습에 보면 ‘천지만물지중 유인최귀’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성서에도 ‘사

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바꾸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나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생명은 존귀한 것이니 종교에서 강조한 말씀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는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제일가는 생물학적 기초자본입니다. 우리는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여 창조적인 문화의 삶을 행복이 가득한 인간 생명의 승리자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화를 함양하고 생명으로 웃음의 눈동자를 모으고 사랑으로 참된 인간의 삶을 우리 모두 열어갑시다.





김 형 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충북도의회를 사례로 본 지방의회의 새로운 변화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입법·의결권한에 따른 정책결정 기능, 행정사무감사·조사권에 따른 행정통제 기능, 청원의 수리와 처리권에 따른 주민대표 기능으로 꼽힌다.

이는 공히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의결은 의회가 분리해서 맡아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과연 현재도 그럴까? 필자는 이 글에서 지방의회의 전통적 기능과 역할이 변천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도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되어감을 주장하려 한다.

먼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기능이 다양화 되었다.

충북도의회가 도민 행복만족도 향상방안을 연구하여 집행부에 제안했듯이 의회가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먼저 하기도 한다.

또한, 경남도의회에서 시도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례처럼 집행 전 정책협의를 한다.

그리고, 우리도에서 초·중학생 무상급식 결정을 하기 전 도와 교육청, 의회가 공식·비공식 논의를 통한 것은 사실상 정책에 대한 공동결정 과정이었다.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은 강화되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되었고, 선서 및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가 증액되었다. 연 회의 일수가 10일 연장되어 130일이 되었다. 결산검사 결과 재정상 해를 끼친 것이 발견되었을 시,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변상 및 징계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주민대표 기능도 확대되어 진정 및 민원처리 기능만이 아니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과 집행

을 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한 약 3개월간의 끈질긴 지역투쟁의 선봉에 섰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속적 대응 등 많은 사례가 있다.

지방의회는 운영면에서도 발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했으며,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본회의를 본회의장이 아닌 옥천에서 개최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포함해 대집행부 질문의 방식과 횟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의 혁신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의원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꾸준하여 전반기에 도의회는 2개월에 한번 꼴로 의원연찬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은 조례 제·개정 발의와 대집행부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견수 등에서 전 의회보다 1.5~3.4배 증가된 실적을 보였다.

제도적으로도 지방의회의 숙원인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사례와 함께 열거했듯이 이러한 변화상은 한마디로 집행부-정책입안 및 실행, 의회-의결이란 기존 도식에서 벗어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양화하고 확대·강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위상변화에 기초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기존 명제인 견제와 균형이란 개념을 초월해 융합형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본다.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에서의 상호견제를 넘어서 과제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가고, 엄격한 균형관계를 넘어서 상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 요구하는 10대 도의회 교육자치 안착을 기대한다

전응천 의원
(교육위원회)



제9대 충북도의회 교육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이제 2개월여 남았다.

제9대 충북도의회 교육의원으로서 선출되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설렘, 낯선 도의원 생활에 대한 긴장감을 안고 도의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3년 10개월이 훌쩍 흘러 어느덧 그 끝자락에 와 있다. 새삼 세월유수(歲月流水)를 실감한다.

지금 이 순간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많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떠오른다. 전국 최초로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21건의 조례안과 8건의 연구과제 수행, 8건이 넘는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등. 제9대 교육위원회는 충북교육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문제를 확인·점검하며 도민의 교육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분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교육위원으로 당선됐을 때 “저를 교육위원으로 뽑아주신 지역구 주민과 충북도민의 교육적 열망과 요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충북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40년간 교육자·교육행정가로 충북교육현장의 중심에 섰던 교육경험과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위원의 역할과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고민하며 도민과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펴나가려 노력했다.

그러나 교육의원생활을 갈무리해야 할 즈음에 돌아보

니 마음 속 깊은 곳에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아있음을 느낀다. 그 중에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교육위원회제도의 폐지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까지 진통을 겪어가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었지만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2월 10일 교육의원총회 등 교육관련 단체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월 11일 각하 결정함에 따라 교육위원회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교육의원이 오는 6월 30일로 일몰되고 교육전문위원실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은 선출되지 않는다.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제도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상징적 제도로서 지방교육자치제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우린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육자치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서있다. 모쪼록 6.4지방선거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많이 선출되어 새로 시작하는 제10대 도의회에서는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가치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충북에 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b.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b.cb21.net>